

나 벽 가까이에서 방향을 바꿀 때 발판 밖으로 나와 있는 장애인의 발이 모서리에 부딪쳐 상처를 입는다. 유의해야 할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맨홀의 틈새(앞바퀴가 끼이면 휠체어가 쓰러진다). 튀어 나온 보고블럭. 막대기나 파이프, 벽돌조각, 패이거나 꺼진 부분. 지하철의 객차와 플랫폼 사이의 틈. 보도와 차도 사이의 턱.

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조심하라.

어떤 장애인들은 휠체어에 클렉손을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람으로 혼잡한 도로나 행사장 같은 곳에서 휠체어의 이동이 얼마나 어려운 노릇인지를 보여 주는 예이다. 특히 휠체어 진행 방향에 뒤돌아서 있는 사람이나 휠체어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부딪칠 위험이 있다. 뒤돌아 선 사람을 발판이 받았을 경우 받친 사람이 휠체어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 번잡한 장소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봉사자가 소리를 내어 휠체어의 움직임을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앞 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잡는다.

마. 휠체어 안전벨트가 필요한 장애인

휠체어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은 허리를 등받이에 붙여 주는 벨트가 필요하다. 또 손이나 발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과 발목을 휠체어에 고정시켜 주는 벨트가 있다. 허리벨트가 없을 때에는 봉사자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을 때 장애인의 옷자락을 겹쳐 잡음으로 사고에 대비한다.

바. 경우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손으로 휠체어를 굴리고 있는 장애인이나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평지 이동을 하고 있을 때, 바닥이 매우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곳, 턱이나 패인 곳에서 힘들어 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의견을 물어 본 후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사진 도로, 경사로 이동

가. 경사를 오를 때

봉사자는 휠체어 뒤에서 가급적 낮은 자세를 취하며 밀어올린다. 장애인의 체중이 무겁거나 경사가 급하고 힘이 부칠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휠체어를 비스듬히 놓은 후 브레이크를 잠그고, 휠체어를 잡은 상태에서 휴식을 취한다.
- ② 경사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지그재그로 오른다.
- ③ 경사 밑으로 다시 내려와 브레이크를 잠그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한다.

나. 경사를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뒤로 돌려 천천히 뒷걸음으로 내려가나, 장애인의 체중이 무겁지 않은 경우 휠체어를 넘어 앞으로 내려간다. 체중이 무겁거나 경사가 급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① 브레이크를 중간 위치에 놓아 바퀴에 마찰을 준다.
- ② 손을 뒤로하여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앞을 보면서 내려간다. 이 경우 앞쪽을 볼 수 있어 방향 가늠을 할 수 있다(경사로가 휘었을 때 이 자세가 효과적이다).

턱 통과

가. 낮은 턱(앞으로 넘기)

- ① 휠체어 느름대를 발로 눌러 앞바퀴를 턱에 올려 놓는다.
 - ② 뒷바퀴를 턱에 붙인 후 손잡이를 들어올려 뒷바퀴를 턱에 올린다.
 - ③ 휠체어를 뒤로 누여 두 바퀴가 동시에 바닥에 닿게 하며 내려온다.
- # 턱에서 내려올 때 두 개의 뒷바퀴가 동시에 바닥에 닿지 않으면 휠체어가 기울어 쓰러질 우려가 있다.

나. 높은 턱(뒤로 넘기)

- ① 턱이 높아 앞으로 오르기 힘들 경우에는, 휠체어를 돌려 누인 후 뒤로 끌어 올린다.
- ② 내려갈 때에는, 앞바퀴를 턱에 걸친 상태에서 뒷바퀴를 천천히 동시에 바닥에 내려놓는다.
- ③ 혼자서 힘들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한다.

계단 오르고 내리기

계단 이동은 힘과 기술이 요구되는 일로서 사고 위험이 크다. 만약 계단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한다.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하는 사항

- ① 휠체어가 힘을 받을 때, 손잡이 덮개가 빠질 염려 없는지 점검한다.
- ② 봉사자의 신발바닥이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을지 점검한다.
- ③ 장애인의 체중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아 조금이라도 벅차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한다.
- ④ 계단턱의 높이는 일정치 않다. 높은 턱에서는 그만큼 힘이 많이 든다.

가. 계단 오르기

- ① 계단의 가장자리 난간쪽에 붙는다(사고시 대비).
- ② 휠체어를 돌려 누인 후 한 단계씩 끌어올린다(휠체어를 누였을 때 장애인이 머리를 가누지 못해 뒤로 제쳐질 경우 손잡이를 잡은 한쪽 팔에 기대게 한다). 이 때 휠체어의 무게 중심을 잘 이용해야 오르기가 쉽다.

나. 계단 내려가기

- ① 계단의 가장자리 난간쪽에 붙는다.
- ②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중간 위치에 둔다(만약 놓칠 경우를 대비하여).
- ③ 휠체어를 뒤로 누여 앞으로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간다(무게 중심 이용).
계단 이동시 휠체어를 놓치게 되는 때에는 휠체어를 벽이나 난간쪽으로 쓰러뜨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계단 이동은 절대로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낮은 계단부터 숙달자의 시범을 통해 기술을 익혀야 한다.

다. 봉사자가 2인일 경우

계단을 이동할 때에는 적어도 2명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요령을 모르면 힘이 더 들 수 있다.

- ① 1명은 휠체어를 뒤로 누인다.
- ② 다른 1명은 휠체어 앞에서 발판지지대 아래쪽을 잡고 수직으로 약간만 들어준다(보통 지지대를 들어 주는 사람이 너무 높게 들면서 밀어 주는 경향이 있는

데, 이렇게 되면 끌어올리는 사람이 뒤로 넘어지거나 힘이 배 이상 들게 된다).

③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사람이 뒷바퀴를 계단턱에 굴리면서 끌어올린다.

2명이 휠체어 옆에서 각각 손잡이와 발판지지대를 잡고 이동하는 방법은 힘이 많이 든다.

라. 봉사자가 3인일 경우

흔히 봉사자가 3인일 경우 변칙 들어올린 상태에서 계단을 이동하는데, 계단이 적을 때는 괜찮지만 많을 경우에는 불편하며 힘이 많이 든다.

① 두 명은 발판 지지대를 하나씩 잡고 뒷바퀴가 계단턱에서 구를 수 있도록 조금만 들어준다.

② 나머지 한 명은 휠체어를 누여 뒷바퀴를 계단턱에 굴리며 끌어올린다.

뒤로 누인 휠체어를 바닥에 바로 놓을 때, 턱이나 계단을 오르내린 후, 뒤로 누인 휠체어를 바닥에 바로 놓을 때에는 앞바퀴가 부드럽게 닿도록 천천히 내려놓는다. 갑자기 내려놓으면 상당한 충격이 장애인의 몸에 전해지며 앞으로 엎어질 수 있다.

문 출입

앞뒤로 열리는 문 혹은 미닫이식 자동문을 통과할 때에는 문 가까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킨 다음, 앞으로 가서 미리 문을 열어 둔 후 통과할 때까지 문을 잡고 있다.

* 유의사항

문 앞에 휠체어를 정지시킬 때 발판 밖으로 나온 발이 문과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 문 통과시 모서리에 장애인의 팔이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

회전문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크기가 아주 작은 휠체어는 회전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이 경우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승강기) 타고 내리기

가. 도와 주는 경우

① 봉사자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른 후 휠체어를 돌려 놓는다.

② 문이 열리면 뒤로 들어간다. 이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급적 뒷벽에 붙는다.

③ 내릴 때는 그대로 앞으로 나온다.

탈 때 앞으로 들어가면 휠체어 발판이 다른 사람이나 벽에 부딪칠 염려가 있으며, 승강기가 움직이는 동안 뒷벽을 향하게 되어 내리는 층을 빨리 보지 못한다. 또 뒤로 내리면 신속히 내리지 못한다.

나. 장애인이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경우

필요시 버튼을 눌러 주며 장애인이 승강기 문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을 잡아 준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리기 위해서는 봉사자의 기술이 필요하다.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 올라갈 때

휠체어를 뒤로 누인 후 앞으로 오른다. 이 때 봉사자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채 한두 계단 아래 위치한다(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는다).

나. 내려갈 때

휠체어를 뒤로 뉘인 후 앞으로 오른다. 이때에도 봉사자는 한 계단 위에 위치한다.

2) 시각 장애인 안내 요령

처음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보는 사람이 먼저 손을 잡고 악수를 ...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에는 가볍게 악수를 해주십시오. 시각장애인에게 악수해 주면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대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또한 그 사람의 신장이 얼마나 되는 등을 당장에 알아 볼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친근감도 우려나오는 것입니다. 악수를 함으로써 엉뚱한 방향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실수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며 "나는 봉사원인 아무개입니다"라고 자기소개같은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의자를 권할 때는: 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의자에다 손을 대준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의자에 앉으려 할 때 뒤에서 양어깨를 누르는 식으로 하거나 팔을 부둥켜 아는 식으로 거들어 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인즉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못본다고 해도 의자에는 충분히 앉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의자의 위치와 의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을 의자의 등을 만지도록 살짝 대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지나친 서비스를 해주면 공연히 장애인의 무능함을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려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의 스마트한 몸놀림은 시각장애인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 앞에 탁자같은 것이 있으면 손을 잡아서 탁자를 만져보게 하면 그 탁자의 높이를 알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차나 커피등을 권할 때

차나 커피등의 대접을 할때는 살짝 손을 끌어서 닿게 해주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에 있는 손으로 더듬어 찾는 식의 불품 사나운 짓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6시방향에 놓겠어요' 등으로 말하면서 차를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계바늘의 위치로 알려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차를 오른쪽 앞에 내놓았는데 다시 채우거나 할때 전의 위치와 다르게 왼쪽 방향앞에 내놓은 일은 가장 난처한 일입니다. 오른쪽 앞에 있겠지 생각해서 무심코 손을 내뻗어 차를 옆지르는 등의 실수하게 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차에 국한하지 않고 위치를 정해서 놓여진 물건은 언제든지 같은 위치에 놓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리를 뜰 때: 조금 소리를 내면서 자리를 뜨면 좋다.

방안에서 2,3명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시각장애인이 아무개씨 하고 불었을 경우 "그분은 지금 자리를 떠서 안계십니다."라는 말을 듣고 불쾌한 생각이 들때가 가끔 있습니다. 좁은 방안같은 곳에서는 못보더라도 사람이 움직이는 기미는 잘 알수 있습니다만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는 자칫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리를 떠서 없는 사람을 불러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뜰때는 "잠시 자리를 뜨겠습니다"라고

미리 한마디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은 방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노상에서 말을 걸어오기에 가던 길을 멈추고 말대꾸를 했는데 어느새 상대방은 이미 가버리고 혼자 말을 하고 있는 꼴이 되버려 우스꽝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기분이 나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바빠서 실례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건의 위치를 알려려면: 시계바늘 위치로 알려주면 좋다.

탁자 위에 여러가지 물건이 늘어놓아져 있을 경우 어느것이 어느것인지 짐작이 안가서 난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계바늘 위치로 알게 해주면 안심하고 손을 내밀어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시방향에 유리잔이 있어요, 6시방향에는 냅킨이, 9시방향에는 생선회가, 그리고 12시방향에는 샐러드가 있어요' 하는 식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곳에는 없는데요'라는 식의 말은 그곳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실내나 실외의 경우도 지금 서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몇걸음,왼쪽으로 몇걸음, 또는 오른쪽으로 몇 걸음이라는 식으로 알려 주십시오.

식사할 때에는

누구나 식사를 즐기면서 하고 싶다. 식사란 모두가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탁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음식을 잇달아 가져다 주는 식의 친절은 시각장애인에겐 참으로 불유쾌한 것입니다. 시계바늘방향으로 미리 음식물의 종류나 위치를 가르쳐 주면 혼자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릇에 살짝 손을 인도해서 접촉시켜주면 그 그릇의 크기 등도 알수 있습니다. 그밖에 음식물의 색깔이나그릇 따위의 모양을 설명받으면더욱 더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

칼을 신중하게 건네주길.. 칼과 같은 물건을 건네줄때는 안전한 손잡이 부분을 잡게 해주십시오.그리고 다른 한쪽손으로 칼날의 등 부분을 접촉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하면 칼의 방향이나 길이도 알게 되어 부상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같은 것을 건네줄 때는 손잡이를 잘 분간하도록 하여 건네줌과 동시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주둥이의 위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전자를 받았을 때 실수로 발에 뜨거운 물을흘리게 하는 따위의 사고는 피할 수 있습니다.

성냥이나 전화는 ..

지나친 서비스는 고맙지 않은 것 시각장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자, 불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성냥이나 라이터 불을 입에 물고 있는 담배에 갖다 대거나 전화를 걸려고할 때 다이알을 대신 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담배의 끝과 성냥의 불꽃이 들어맞으면 좋지만 안맞으면 코끝이나 속눈썹을 태우는 경우가 있어서 모처럼의 친절이 역효과를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중 많은 사람은 일상의 생활동작훈련을 받았거나 생활속에서 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중이므로 부탁받지 않았으면 성냥을 건네주거나 전화의 경우 그 사용 원칙만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안내할 때

견기 쉽게 안내를 ... 보지못하는 사람의 보행에서 손을 잡고 안내할 때 필요 이상의 신경을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을 잡고 안내한다는 기분이 너무 강하면 자칫 신경을 너무 쓰게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걸어간다는 기분으로 해 주

시면 됩니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다리나 발까지 불편해서 못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발 밑이나 주위에 있는 장애물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걷는 일에 곤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팔같은 곳을 끌어안는 식의 안내를 받게 되면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곤란합니다. 그냥 오른팔을 잡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왼팔을 통해서 상대방의 몸 움직임을 참으로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시각장애인이 약간 처져서 걷게 되므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도 자유로워서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작은 계단이라도 알 수 있도록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안전하게 건물 속에서는 물론 실외에서의 보행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있어 특히 신경 쓰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헛발을 던지 않도록 안내하자면 시각장애인이 왼손으로 안내인의 오른팔을 가볍게 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왼손을 통해서 상대방의 발 움직임까지도 잘 알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또한 계단앞에 다달았으면 '올라갑니다'라든가 '내려갑니다'라는 말을해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돈 따위를 건네줄 때

돈을 알기 쉽게 건네주도록 금전을 주거나 받을 때 잘못이 있으면 불유쾌한 감정이 남게 마련이고 소중한 신뢰감까지 잃게 되는 것이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물건 구매를 부탁하며 돈을 내놓았을 때 보통 상점점원이 하듯이 돈의 액수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받아 주십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자로 삼아 재보거나 접는 방법, 혹은 지갑이나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칸을 달리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실수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돈을 건네줄 경우에도 '여기 놓겠습니다'라며 책상위에 놓거나 하지말고 확인할 수 있도록 친절히 손에 건네주십시오.

택시나 승용차를 탈 때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이 택시나 승용차 등을 탈 때 정지하고 있는 차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차의 문에 손을 대보도록 도와 주십시오. 차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좌석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차를 탈 때 차의 지붕에 손을 대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차의 높이를 알 수 있어서 머리를 다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안에서는 지팡이를 접든지 접을 수 없는 것은 가로로 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팡이를 양팔에 끼고 몸을 앞으로 지탱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차가 급정거했을 때 목이나 얼굴 등을 다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지팡이를 놓는 위치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벨의 위치를 알려주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난처한 일은 과연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행선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버스안에서 좌석은 잘 양보해 주지만 벨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시각장애인도 벨의 위치를 알기만 하면 자기도 누를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서 있을 때는 손잡이나 쇠파이프 기둥 같은 것의 위치도 잠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르고 내릴 때는 손잡아 안내해 주는 것보다는 의지할만한 곳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금 넣는 상자가 있는 곳도 가르쳐 주셔야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릴 때

에스컬레이터 옆에 손을 대줄것 '보지못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은 위험 합니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인즉 에스컬레이터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것중의 하나입니다. 그러자면 왼손이 벨트에 걸치도록 해 주십시오. 내릴때는 벨트의 움직 임으로 다 올라갔거나 내려간 것을 알게 되어 중심을 앞으로 해서 일보앞으로 내딛게 되므로 안전합니다. 벨트를 잡지않고 에스컬레이터 가운데에 서서 가는 것처럼 불안한 일은없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의 팔을 꼭 껴안는 것보다는 혼자서 벨트를 잡게 하는편이 신체가 자유로와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해 주시는 분은앞에 타고 있는 것보 다는 한단 아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청각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청각언어장애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대부분 두 장애를 동시에 지니지 않지만, 청각장애로 인해 언어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수화법, 지화법, 필담 중 가장 좋은 의사소통방법을 확인한다.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

1) 장애인의 주의끌기

- 우선 장애인이 상대방에게 주목하여 대화할 준비가 된 후에 시작한다.
- 장애인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의 앞에 서서 이름을 부르거나 팔, 어깨 등을 가볍게 건드리거나 책상, 벽을 두드린다.
- 단,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말하기 위한 자세

- 청각장애인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얼마나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는 말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 그가 부분적인 청력, 구화법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입술모양이 분명하게 보이고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한다.
- 장애인과 마주 본 자세를 취한다.
- 대화 중에 음식을 먹거나, 흡연하거나, 혹은 껌을 씹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입모양에 영향을 준다.
- 턱수염, 콧수염 등이 입을 가림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음을 상기한다.
- 빛, 조명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출 수 있도록 한다.
- 가능한 한 90-12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 한다.

3) 말하기

- 적당히 크고 일정한 목소리로,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으로, 간략하게 이야기 한다.
-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한 문장을 말하고 약간 쉬 후, 다음 문장을 말한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 얼마간 시간을 두고 이야기 한다.
- 이야기 도중 다른 상황(초인종이나 전화벨이 울린 경우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설명해 준다.

4) 쓰기

- 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구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주소, 열차 시간, 의약품명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하다.
- 청각장애인에게 글을 쓸 때는 필체에 유의한다.
- 글뿐 아니라 지도, 도표, 그림 등을 제공할 때 이용한다.
- 장애인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 그의 표정을 관찰하여, 그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몸짓과 얼굴 표정

- 청각장애인, 특히 구화법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얼굴 표정은 매우 유용하다.
- 색안경, 커다란 챙모자는 전체 얼굴, 특히 눈을 가릴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과장된 얼굴 표정과 몸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다.
- 입모양이 바로 보이도록 머리를 움직이거나 지나친 얼굴표정을 짓지 않는다.

6) 대화를 위한 주위환경

- 청각장애인과 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좋은 음향효과와 조명을 지닌 조용한 방이다.
-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등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주위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한다.

7) 소집단에서 이야기하기

- 소집단에서의 대화는 초점이 없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대화시 장애인의 위치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정면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동차에서는 앞쪽 승객석에 앉는 것이 좋다.
- 말하는 속도를 늦추고, 한 번에 한가지에 대해서만 말한다.

언어장애인과의 의사소통

1) 경청하기

-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한다.
-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일반인만큼 빠르지 않으며, 청각장애를 함께 지닌 경우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더욱 시간이 걸림을 인식한다.
-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장애인과 가까이 앉는다.
- 장애인의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적당하게 천천히 말을 하여 여전히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린다.
- 장애인이 말하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2) 방해

-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 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다.

3) 경청을 위한 주위환경

- 언어장애인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
- 언어장애인이 대화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음악소리이며, 이밖에도 TV, 자동차모터, 그 장애인의 목소리와 유사한 소음 등이 방해요인이 된다.
- 집단 내에서의 대화보다는 일대일 대화가 좋으며, 걷거나 검을 씹는 등 다른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방해가 된다.

4) 글로 된 메시지

-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읽을 수 있는 장소, 자유로운 손, 약간의 조명이 필요하고, 탁자가 있는 경우 매우 유익하다.
- 쓰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 집단에서 언어장애인이 글을 이용하는 경우, 대화 속도에 맞추지 못하므로 옆에 앉은 사람이 장애인의 글을 큰소리로 읽어준다.

수화 및 수화통역

- 수화는 단어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손 동작, 손 위치를 이용하는 의사 소통방법이나, 많은 청각장애인들과 일부 언어장애인들이 사용한다.
- 수화통역을 통한 의사소통하는 경우, 대화는 더욱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 대화를 하는 동안 수화통역자가 없는 것처럼, 대화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 통역자는 모든 말을 그대로 수화로 통역하므로, 통역되기 원치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 통역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거나 대화내용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다.
- 장애인과 개인적인 대화를 원할 때는, 통역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주도록 양해를 구한 후 글이나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보장은 통역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대개 불필요하다.
- 다른 언어로 통역될 때는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기 쉬우므로, 되도록 명백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
- 여러사람의 대화에서는 통역자가 한 번에 한가지만을 통역하도록 한다.
- 아동이 통역을 하는 경우 복잡한 표현을 삼가한다.

전화

- 전화통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를 걸 경우, 그는 전화벨소리를 즉각 듣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통 경우보다 더 오래 기다린다.
-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고, 전달할 말을 미리 생각해 놓는다.
- 직접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천천히 문장마다 끊어서 말한다.
- 외국 억양인 경우 직접적인 대화보다 전화로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움이 있다.
- 언어장애인들 중에는 전화통화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때까지는 전화를 삼가한다.
- 언어장애인은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할 것이고, 전화의 경우 시각적인 접촉이 없으므로 더욱 느낌을 이해한다.

원조

- 특별한 통역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할 경우 자주 도움을 줄 수 있다.

- 청각 혹은 언어장애인으로부터 전화를 걸도록 요청받았을 때, 주 목적은 양측 모두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화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 우선 전화로 전달될 내용을 이해한 다음 이를 전달한다.
- 필요하다면 장애인이 핵심적인 사항을 적도록 한 다음, 이를 상대방에게 읽어준다.
- 전화를 끊기 전에 장애인이 더 첨가할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전화를 끊은 후, 장애인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면 전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는다.
- 청각장애인이 외국억양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도록 돕거나, 언어장애인이 시끄러운 식당에서 주문을 하도록 도울 때와 같이 직접 사람을 마주한 상태에서도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또한 아동은 성인보다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돕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장애인을 위해 유용한 것 중 한가지는 그 장애인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은 큰소리로 말하는 사람들, 라디오 혹은 TV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직접 사람에게서 듣는 것보다 덜 명확하고, 구순법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놓치게 된다.
- 화재경보나 자동차 경적소리 등과 같은 위험신호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빗소리, 천둥소리, 비행기소리 등 비언어적인 소리들도 때때로 알려 주어야 한다.

소개

- 의사소통장애인을 소개할 때는, 조용한 장소를 선별하고, 전체 집단보다는 한 번에 한 두사람에게 인도한다.
- 대명사, 특히 이름은 문맥상으로 파악할 수 없어서 듣거나 구화법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분명하게 말한다.
- 소개 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시작될 때까지 잠시동안 함께 머문다.
- 주변의 소음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설명해 준다. 안내자가 개입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 스스로 말하도록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모임에서 알립니다.

편의시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편의시설이 없는 거리나 건물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 임신한 아내, 우리의 어린 자녀, 물건을 든 행인들에게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로턱에서, 횡단보도에서, 공사로 파헤쳐진 거리에서, 까마득한 계단을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위태위태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노인이나 임산부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의 안전에도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다시오고 싶지 않은 도시 서울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으로서 이제 명목상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도 한층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울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도시로 정평이 나았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장애인들에게 서울이란 도시는 다시오고 싶지 않은 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생명입니다.!

장애인은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학교에 갈 수가 없으며, 직장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모임은?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모임(대표 이계준 연세대 교수)은 장애인, 사회복지 관련 교수들,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지난해 12월 결성한 시민 모임입니다. 본 모임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살기 편한 도시를 이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 모임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잘못된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의 편의시설과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칩니다.
- 편의전화(991-7444)를 개설, 잘못된 편의시설에 대한 제보나 개선에 관한 조언을 접수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등을 제작합니다.
- 우리나라에 맞는 각종 편의시설을 제안합니다.
- 본모임과 목적을 같이하는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누구나 편리한 도시를 이룩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시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앞장서서 설치한 건물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고객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 편의모임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복지 건물 마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 모임 전화 : 02) 991-7444 (팩스겸용)

L. n. h. 7444

인권 자료실		
구분	부기	비고
98 2/24	A4	mb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우132-041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103호 (02) 312-5721 / 전승 312-5720 담당: 전정옥 사무국장

보 도 자 료

보도:97-0901

97. 9. 26

시설으뜸 허리우드 극장, 장애인 팔시도 으뜸

지장애인을 팔시하는 허리우드 극장을 고발합니다. 지난 9월 23일 오후 8시 30분 경,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배용호 연구실장(본인) 등 3사람이 영화관람을 위해 허리우드 극장의 레드관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에서 내렸으나 레드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계단을 또 한참 올라가야 했습니다. 본인(배용호)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어서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 일행은 안내 데스크에서 다른 엘리베이터나 운송 수단이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내 데스크의 안내원으로부터 계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안내 데스크에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타 극장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부득이 계단을 이용해야 할 경우 직원들이 나와 친절하게 도움을 준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내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리라는 직원은 처음부터 불쾌한 표정으로 왜 불렀느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도움을 청하자 "이곳은 다 계단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고 잘라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곳은 다 계단이고 극장 내부에 들어가도 또 계단이 있어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마치 장애인이 왜 극장에 왔느냐는 듯이 통명스럽고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휠체어를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일행은 본인만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어서 저를 도와줄 형편이 못되었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리는 다시

“휠체어를 들고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짜증스럽게 잘라 말하였습니다. 저희 일행이 다시 “양쪽에서 잡아주시면 된다”고 말하였으나 대리는 다시 “영화 끝난 후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우리도 퇴근해서 극장에 없다”고 잘라말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럼 우리보고 영화를 보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이냐? 우리도 엄연히 정식으로 표를 사고 들어온 고객이다. 지금까지 여러 극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불친절한 극장은 처음이다”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서야 그 대리는 마지못해 못마땅한 표정으로 관리인 아저씨 두 사람을 불러 저의 휠체어를 양쪽에서 붙잡고 레드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올때는 관리인 아저씨 한사람을 남겨두어서 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일행은 이미 기분이 상할대로 상해있어서 영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쾌한 기분은 지금까지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허리우드 극장의 편의시설 미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우드 극장이 들어있는 건물입구에도 계단이 있으며 화장실 입구에도 4개의 계단이 있을뿐 아니라 화장실내에도 좌변기조차 없었습니다. 레드관뿐 아니라 그린관과 블루관앞에도 역시 7개씩의 계단이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허리우드는 모 영화전문 주간지의 평가에 따라 시설면에서 만점을 얻은 가장 우수한 극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 졌으리라고 생각하였던 저희의 생각은 어제의 일로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이 왔을 때나 혹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친절마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에서는 이에 항의공문과 함께 사과요청과 편의시설 개선안을 보냈지만 허리우드극장에서는 사과는 커녕 연락조차 없습니다.

인권 자료실		
		호번호
P8 -/24	A4	105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우132-041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2가 35번지 기사면빌딩 103호 (02) 312-5720, 5721 / 전송 312-5720 담당: 전정옥 사무국장

보도자료

보도:97-0801

97. 8. 4

1. 지난 7월 23일에 서울시 버스개혁을 위한 공성회에 참석하여 공영버스에 장애인과 유모차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低床)버스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영버스 300대 가운데 겨우 2대만을 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답변만을 듣고 왔습니다.
2. 이에 장애인대중교통 이용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에서는 지난 7월 29일 서울시청 별관에 소재한 서울시 버스개혁단에 찾아가 단장을 면담하고 저상버스를 더 확충시켜 줄 것을 건의하려 했으나 서울시와 경찰의 저지로 단장도 만나지 못하고 서울시에 민원접수만을 신청했을 뿐이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31일에 저상버스는 단 5대만을 88년도에 1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연대모임에서는 내일(5일) 오전 10시 30분, 삼성동 무역센터(NDEX) 3층 대서양관에서 열리는 "대중교통락탈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는 우리의 의사를 피켓시위와 유인물 홍보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5. 이에 취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1997년 8월 4일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여성마미연구회 바름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전국장애인가족협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우132-04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103호 (02) 312-5720, 21 / 전송 312-5720 담당: 전정옥 사무국장

보도자료

보도:97-0701

97. 7. 30

1. 어제(7.28) 오후 2시, "장애인대중교통이용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연대모임)의 회원 20 여명 (장애인 10여명 포함)은 서울시 공영버스에 단 2대만을 도입하기로 한 저상(低床)버스를 공영버스 300대 전부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서울시청 별관 2층의 버스개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려 했다.

2. 그러나 미리 연락을 받은 서울시청 측에서는 엘리베이터의 수리를 핑계로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시켜 휠체어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인 회원들이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이에 연대모임 회원들이 굳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시청 직원들이 내려와 회원들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었다. 다른 회원들이 휠체어 장애인을 도와 계단으로 올라가려 하자 사복경찰 50여명을 동원하여 휠체어 장애인들과 연대모임 회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엘리베이터와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봉쇄하며 연대모임 회원들을 저지하였다.

3. 이에 연대모임 회원들은 서울시청 별관 로비에서 버스개혁위원회 단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자 단장은 현재 청와대를 방문중이어서 부재중이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무성의한 대답을 일관하였으며 버스개혁위원회의 사무관이 내려와 서울시는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변명만을 일관하였다.

4. 연대모임 회원들은 사무관에게 공영버스 300대 전부를 저상버스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자 사무관은 우선 88년도에 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시범운행을 해보고 그 결과 88년도까지 10대, 그리고 2천년대에 다시 차츰 확대해 나가겠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이에 연대모임 회원들은 공영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먼저 지형조사와 도로조사를 거쳐 가능한 지역의 노선에는 모두 저상버스로 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서울시가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 했을 뿐이었다.

5. 이에 연대모임 회원들은 오후 5시까지 단장을 기다리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서울시청 본관으로 가 서울시청 면담 요청과 공영버스에 대한 건의안을 민원접수하기로 하고 세종로를 가로질러 서울시청 본관으로 향하였다. 이에 50여명의 사복경찰들은 연대모임 회원들을 호위하며 서울시청 본관까지 동행하였다.

8. 서울시청 본관 민원실에 건의안을 접수하고 서울시청 비서관과의 면담을 마신 연대모임 회원들은 서울시 버스개혁안이 확정되는 7월 31이전에 서울시의 답변과 시장과의 면담 여부를 확답받고자 했으나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7. 비서관과의 면담을 마친 연대모임 회원들은 이에 해산하고 가져온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던 서울시청 별관으로 다시 가터 하자, 50여명의 사복경찰들은 준비한 버스를 타고 갈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연대모임 회원들은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있어서 버스 타기에 불편하며, 세종로에는 횡단보도도 없고, 지하보도에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종로를 횡단해 가겠다고 주장했으나 사복경찰들은 서울시청 별관 입구를 봉쇄하고 세종로를 무단횡단 할 수 없으므로 버스를 타고 갈 것을 강요하였다. 이때부터 밖으로 나가려는 연대모임 회원들과 버스 외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복경찰단과의 몸싸움이 1시간에 걸쳐서 있었다.

8. 1시간 여의 몸싸움 후에 사복경찰단은 휠체어 장애인들만 혼자서 한사람씩 세종로를 횡단해 가라며 1사람씩만 보내주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연대모임 회원들은 휠체어 장애인들은 보조자가 필요하며 혼자서는 갈 수 없고 혼자 세종로를 횡단하라는 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항의하였지만 사복경찰단의 저지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에 연대모임 회원들은 차타디 계단이 많은 지하보도로 기어서 내려가겠다고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복경찰단은 지하보도는 계단이 많으므로 갈 수 없으니 보내 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저지를 하였다. 이에 연대모임 회원들은 보도를 통해서 지하보도로 가는 것은 시민의 자유이며 저지할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만을 받았을 뿐이다.

9. 결국 시민모임은 오후 7시경에 서울시청 본관 입구에서 해산을 하기로 하고 2사람씩만 보내주는 경찰에 의해 뿔뿔히 흩어져서 두 사람씩만 차태로 서울시청 본관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모든 회원이 나오는대는 무려 1시간여가 걸렸다.

10. 서울시청은 분명히 서울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장애인 등 서울시민의 출입을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끌어내는 등의 폭력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청 본관입구에서는 버스를 타고 갈 것을 강요하며 보도로 가거나 지하보도로 가는 것마저 저지하는 등 국민의 자유권과 보행권을 침해하였다. 민주사회, 복지사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이러한 폭력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매일 자행되고 있다.

1997년 7월 30일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권리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

(여성마비연구회 바롬회, 장애인연의시설축진시민모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관번호
	A-4	28

시사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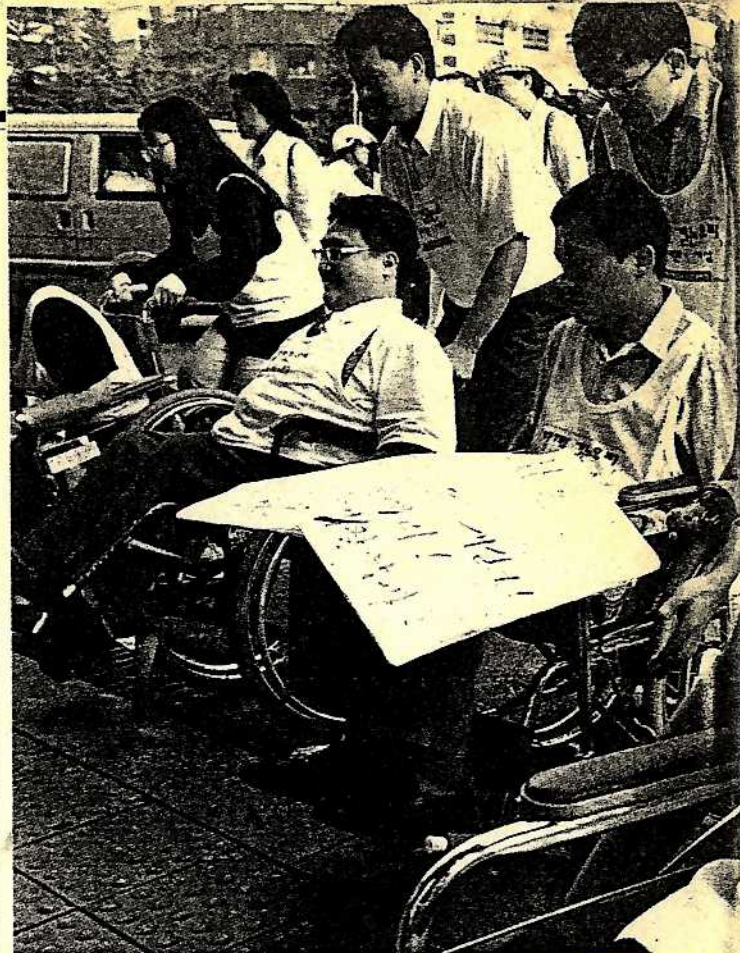
서울시는 거대한 장애물

장애인 위한 교통·편의 시설 거의 없어
정상인들 '함께 걸음 대행진'서 재확인

장 애인의 접근권. 정상인, 혹은 비장애인에겐는 낮은 말이다. '그들'이 정상인의 세상에 접근하는 데 겪는 고통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9월1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함께 걸음 시민 대행진'은 바로 우리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이 우리처럼 교통·편의 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체험의 마당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주관하고 보건사회부와 여러 시민·종교 단체가 후원한 이 행사에는 강원룡(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강문규(전국 YMCA연맹 사무총장) 서경석(경실련 사무총장) 박상천(국회 보사위원장) 등 자원자 60여 명이 명동성당에서 종로 2가 탑골공원까지 2km를 휠체어를 타고, 혹은 눈을 안대로 가리고 걷는 장애 체험을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인기 드라마 <서울의 달> 출연진을 포함한 연예인들이 '우정 체험'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들이 겪은 장애 체험은 '실전'과는 거리가 먼 '모의 전투' 같은 것이었다. 아마도 대학생 자원봉사단원들이 2인1조로 거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거나, 적어도 이동에 걸린 시간과 고통이 배가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도로 턱 수십 개와 횡단보도 4개 지하도 1개를 힘겹게 건넜지만 보호자가 없었다면 그나마 어렵는 것이었다. 특히 을지로 지하도에서는 아예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했다. 휠체어를 접지 않고는 지하도를 건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허가 받은 행사가 아닌 일상에서도 장애인의 무단 횡단이 가능할까.



우리도 그들처럼 : 정상인 60여 명이 명동성당에서 탑골공원까지 2km를 휠체어를

84년 9월 휠체어 장애인 김순석씨는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 그리고 거리의 도로 턱을 없애 달라고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각 장애인 이춘광씨는 당산 전철역에서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92년 3월에는 뇌성마비 장애인인 시인 백원옥씨가 모교인 강남대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다 운동장에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도 이들이 겪은 오늘의 서울 거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현실은 서울 시내의 지하철역 1백30여 곳 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은 최근 개통된 학여울역뿐이라는 사실에서 드



교육지책 : 9월1일 고속도로에 처음 설치한 교통 관망대.

'죽음의 선' 감시하는 쌍안경

고 속도로의 중앙선은 '죽음의 선'이다. 구마고속도로 가운데 합안군 칠서면 대치리의 3.3km는 짧은 구간이지만, 지난 한 해 여기서 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크게 다쳤다. 이는 구마고속도로 전체 사고의 9.2%에 해당한다.

사고 원인은 중앙선 침범이다. 죽고 또 죽어도, 차들은 이 죽음의 선을 막무가내로 넘어온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1일

이 구간에 높이 5m의 교통 관망대를 설치했다. 관망대가 설치된 9월1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차량 57대가 이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관망대에서는 오전·오후에 순찰 경관이 2인1조씩 교대로 근무한다. 관망대 위에서 쌍안경으로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밑에서 대기하는 순찰 차량에 무전으로 통보해 단속한다.

박흥총장에 항의

서강대 교수협, '교무회의 폭언'에 반발

서강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영한)가 8월30일 박흥총장의 교무회의 발언에 대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의 사건은 7월28일 박총장의 주사와 발언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서강대 교무회의에서 벌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에 따르면, 박총장은 회의 서두에 주사와 사태와 폐해에 대해 장시간 열변을 토했다. 그는 자기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준 경영대 교수들에게 감사하면서 "문과대 교수들은 이런 데 참여할 것 같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총장 발언이 끝나자 임상우 교수(사학과)가 의의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의 주도적 학생 운동은 결코 주사파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주사파는 놔둬도 사그러지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장의 외부 발언은 서강대의 위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총장은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교내 개혁에 진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박총장은 임교수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폭언의 정도가 "입에 담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전했다. 사회를 보던 서정호 부총장도 임교수에게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임교수가 "사상적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부총장은 "그렇다"고 응수했다. 임교수는

교수 사회의 매카시즘 선풍을 강력히 비판하고 퇴장해 버렸다.

나머지 교무위원들은 임교수가 퇴장한 뒤 박총장의 '대학 지키기' 운동을 성원하기로 결의하고, 이튿날부터 단과 대학 별로 교수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교수들이 얼마나 여기에 서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강대 교수들 사이에서 숨죽여가면서 이야기되던 이같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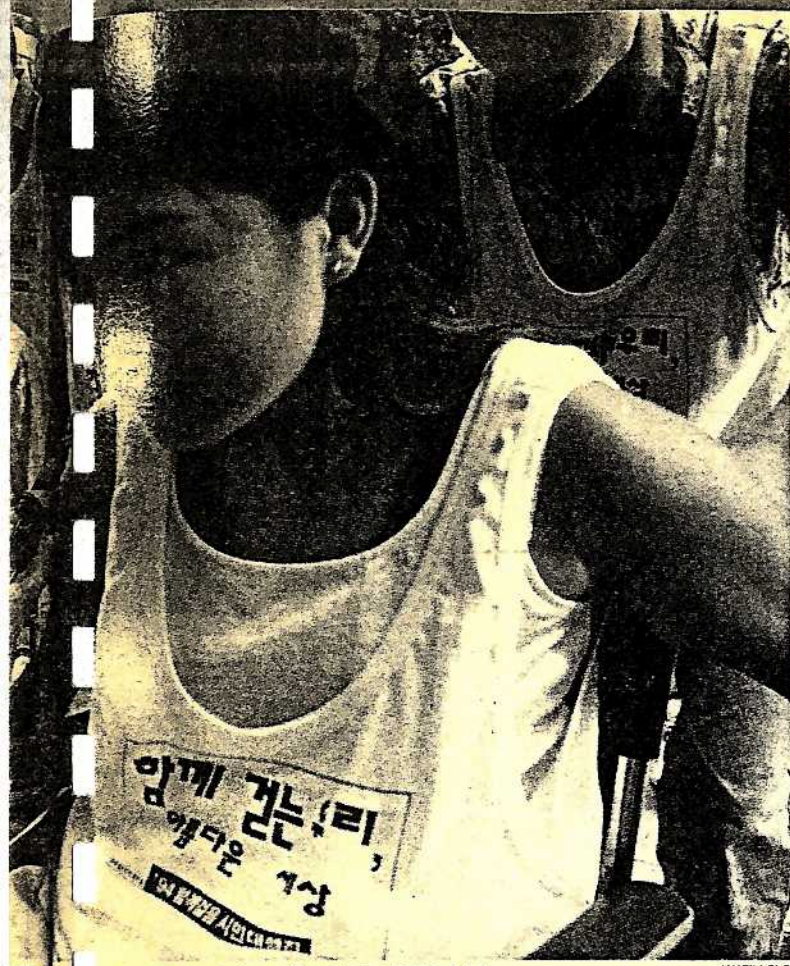


도야! : 박흥총장 비판대자보를 읽는 학생들.

실은 최근 서강대 교수협의회가 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냄으로써 공식 확인되었다. 교수협의회는 이 서한에서 박총장과 부총장의 발언을 언어 폭력이라고 규정 짓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반대 의견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총장의 '우국'을 지지하는 교수들도 있다. 그러나 그의 '행태'를 지지하는 교수는 별로 없다는 것이 교수협의회 항의 서한에 표현된 서강대 교수들의 중론이다. 당사자인 임교수는 침묵하고 있다.

朴在權 기자



서사자별 집 등

어린 아이는 눈을 가리고 걷는 '장애 체험'을 했다.

러난다. 이는 우리나라에 '在家 장애인'이 유달리 많은(전체 장애인 중 90% 추정) 까닭을 설명해 준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의무교육이 실시되어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도,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접근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이 날 장애 체험을 함께 한 김성계 이사장(한신대 교수)은 "장애인의 접근권은 시혜가 아닌 최소한의 권리이자 장애인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김 담 기자

이 구간은 편도 1차선인 데다가 굴곡이 심하고 경사진 곳이 많다. 여기에다 구마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왕복 4차선 확장 공사로 말미암아 갓길 이 좁다. 이처럼 도로 사정이 나쁜 데다가 화물 차량이 많이 지나다녀 이를 추월해 가려는 성급한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주 사고를 일으킨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金港圭 경감은 "단속보다는 위반하려는 심리를 미리 억제해 사고를 예방하려고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관망대로부터 1km 떨어진

지점에 단속 예고 표지판을 설치한 것도 그 때문이다. 밤에는 무인 초소에 경광등을 가동해 '집'을 주고 있다.

취재하는 중에도 그런저 승용차 한 대가 전방 2km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위반자들은 "저 멀리서 그랬는 걸 우찌 알았능교?"라고 반문한다.

감시자가 없으면 죽음도 불사하고 질서를 위반하는 풍토가 계속되는 한 이 관망대는 '불신의 탐'일 수밖에 없다.

경남 함안·蘇成致 기자

백년 의 민 심

민을 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민을 만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민을 수 있는 사회라고 합니다.
 민을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믿어도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으뜸가는 덕목으로
 가장 높은 가치로
 존중되고 있습니다.

환희의 승천을 기다리며
 뼈아픈 인고의 정진을 거듭하는
 용의 정신은 바로
 스스로의 의지에 대한 확신이며
 성취를 위한 노력의 소중함을
 미답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쌍용은
 정진하는 용의 의지와 끝없는 노력으로
 긴 긴 세월 넓은 세상에
 백 년 또 백 년 변치 않을
 소중한 믿음을 심어 나아갈 것입니다.



26)

장애인 약

교통약자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일시: 1994. 4. 20(수)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탑골공원 · 마로니에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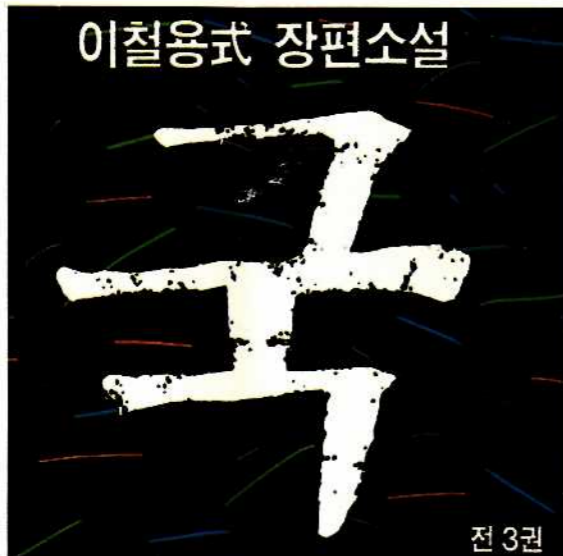
주최 ·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
 주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녹색교통운동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협찬 · S쌍용
 금성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A-4	16



자유로운 이동, 우리와 권리

누구든지 외면한다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철웅식 장편소설

전 3권 각권 값 6,000원

- 작가가 재야에서 정치권에 들어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정치권의 실상을 묘사한 자전적 작품. (3월 25일 동아일보)
- 이 책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비리와 관련해 정치권과 사학재단의 유착관계를 다룬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월 26일 한국일보)
- 수사사건, 사학재단과 기업의 로비, 공천비리 등 정치권의 어두운 구석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이 소설은 등장인물의 이름만 가명일 뿐 대부분 사실로 알려져 정치권에 일대 파문을 던지고 있다. (4월 3일 일요신문)
- 작가는 주제 전달을 위해 사실조, 판소리조, 시나리오 양식, 시 등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4월 6일 한겨레신문)
- 정치권과 국회, 특히 야당의 공천장사와 의원들의 위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소개된다. 김지하의 「오적」과 같은 소리굿 형태의 거친 입담도 끊이지 않는다. (3월 26일 조선일보)
- 이철웅 소설 「국」, 정가의 일과만파 ... 이 소설은 국회의원을 철저히 조롱하고 극도로 비하하는 표현만 해도 십여 가지나 된다. '어둠의 어른신들', '팔꿈치', '들쥐', '팔도잡놈' 등. (4월 7일 주간조선)
- 이철웅 전의원, 국회로비 백태를 소재로 소설 「국」을 펴냈다. 5공 청문회 때 국회에 돈 돈 돈... (3월 27일 중앙일보)
- 이 소설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정치지망생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한다.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의미일 것이다. 국민들도 이제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4월 6일 투요신문)

장담로 정치권의 썩어문드러진 이야기를 쓸까말까 많은 망설임과 고심을 해오다가 결국 용기를 내기로 마음을 굳혔다. ... 나 자신에게 돌아올 고통과 아픔 그리고 모종의 불이익과 보복을 감내어 부정과 불의를 닦아둔다면 이 땅 위에는 새 생명의 탄생이나 새 삶의 기쁜 노래가 영영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작가의 말에서-



국 제 1권 어둠의 어른신들
가난한 뒷골목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의 어른신들'에게 밀려난 힘없는 어둠의 그림자.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농밀한 진짜 어둠의 허미한 반영(反映)에 불과할 뿐...

국 제 2권 양말산의 왕사쿠라
본래 국회의사당 자리에 아트막한 산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양말산(襄馬山), 말을 기르는 산이었다. 그곳에다 민의의 잔당을 짓고, 그 뒷걸데라는 재능의 꽃인 사구라를 줄줄이 심어 놓았으니.....

국 제 3권 시든 무궁화
시들어 버린 무궁화, 이제 우리의 꽃 무궁화를 세로이 피우지 않으면 이 겨레는 이 역사는 희망도 꿈도 없게 된다. 가자! 그대 가자! 어머니의 몸으로, 조국의 몸으로.

도서출판 **비새**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120-3 (가본빌딩 5층)
TEL 409-7153~5/FAX 402-1348

자유로운 이동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16

교통약자·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일시: 1994. 4. 20(수)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탐골공원·마로니에 공원

이러의 권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정신을 규정하는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 국민으로 그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육, 의료, 취업... 모두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 정신적 자유, 즉 자유롭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오고 갈 수 있는 '이동권'의 보장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권리에 앞서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 발짝만 방문을 나서면 마주치는 '턱'과 '계단' 그리고 장애인, 노인을 외면하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처럼 6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국제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서울은 화려한 구호와 요란한 행사와는 정반대로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에게는 여전히 넘지 못할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한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10만여명의 장애인이 양산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장애인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로운 이동권의 보장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 서울지하철 그 속을 들여다 보니...

하루 4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그러나 과연 '시민의 발'을 자처하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장애인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지 알고 계십니까.

94년 4월 15일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지하철 공사 전체 113개 역사 중 최근 개통된 분당선 '학여울'역 단 한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휠체어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은 88년 올림픽 때 전시적으로 설치한 종합운동장역과 을지로입구역 두 곳 밖에 없어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이 빠지는 승강장, 대형사고의 위험 높아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따르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넓이는 5센티미터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전 역사의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넓이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대문역 같은 경우 기준치의 네 배가 넘는 22센티미터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어린이의 발은 물론 휠체어 바퀴가 빠질 정도로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휠체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목숨까지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합실에는 휠체어 장애인용 자동개찰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부분 문이 잠겨 있으며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게 땀질을 해 버린 곳도 있으며 장애인 전용화장실과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필요한 점자안내도와 유도블럭 역시 한 곳도 없는 형편입니다.

장애인, 노인을 외면하는 시내버스와 거리의 보도 턱

시내버스와 거리의 보도 턱 또한 또 다른 '제도적 차별'로 장애인과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5센티미터의 보도턱이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넘어서기 힘든 '벽'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정하지 않게 이곳 저곳에 서는 시내버스 때문에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장애인과 노인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한 시내버스는 더 이상 '시민의 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거리를
마음대로 확보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사는 사회'입니다.

모두가 주인되는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더 이상 '단순한 동정'이나 '불필요한 지출'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거리와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자동차가 중심이 되었던 교통정책을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시민들은 이러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거리를 마음대로 확보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사는 사회'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선언문

인간존중과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교통문화를 위하여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통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매일처럼 반복되는 주차난, 소용난은 물론 교통전쟁으로 한 해 만에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강한 성인들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교통현실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에게는 이동의 자유마저 빼앗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나 지하철만 하더라도 장애인에게는 금단의 땅이나 마찬가지다. 역구내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만 계단 투성이의 지하도로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장애인이 과연 얼마나 있던 말인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처럼 자유롭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3미터 가까이 무섭게 앞을 가로막는 보도의 턱과 계단 그리고 정지신호도 무시한 채 달리는 자동차의 횡포 속에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또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90퍼센트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처럼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의 이동권을 위협하고 제한하는 비인간적인 교통구조는 해마다 5만여명의 새로운 교통장애인을 양산하는 '체도적 폭력'으로까지 자라나고 있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우선인 교통환경, 안전보다 소통이 우선인 교통정책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의 삶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삶까지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이들 교통 소외계층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는 길이다.

우리는 오늘, 교통에서의 평등과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과 함께 어깨걸고 힘찬 첫발을 내딛는다. 오늘, 장애인·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은 비인간적인 교통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우렁찬 울림으로 이 땅에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오늘의 대회를 시작으로 인간존중과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

<장애인단체> 부름의전화, 삼육재활센터, 서울정신지체인복지관, 연화복지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학우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노성마비복지회, 한국세차협회, 한국약사협회,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 한국재활재단, 한국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사회단체> 겨레사랑운동시민연합회, 경정비전국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연합회, 국제시민봉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교통운동, 서울자동차정비사업조합, 어린이교통안전협회, 여성민우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단체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사단

<종교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도교동학민족통일회, 조계종지할 조계사 청년회

<청년단체> 수화동아리연합회(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수화동아리, 서강대학교수화동아리, 중앙대학교수화동아리, 연세대학교재활과, 연세대학교적십자회, 자원활동자연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중앙대학교수화동아리, 한신대학교재활과학생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강남대학교특수교육과, 공주대학교특수교육과, 단국대학교특수교육과, 대구대학교특수교육과, 대구대학교재활대학, 대구대학교직업재활과,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과, 전주유석대학교특수교육과) 키비탄대학생연합회(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가톨릭의대, 명지대학교)

-가나다 순-

주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

주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521-5364, 874-4009)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행사순서

1부

(탑골공원 10:00~10:40)

사회·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대회사	김관석 (대회조직위원회 공동대표)
격려사	최형우 (내무부장관)
축사	정대철 (민주당 고문)
연대사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
내외빈소개	
참가단체소개	
선언문 낭독	배용호 (장애인)
행진, 출발	

2부

(탑골공원-마로니에 공원
10:45~11:30)

- ①팀 도보행진: 탑골공원-마로니에 공원
- ②팀 지하철 이용: 종로3가-혜화역
- ③팀 시내버스 이용: 종로5가-혜화역

보도턱과 횡단보도, 지하철, 시내버스를 장애인과 노인 등의 교통약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명사들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사회·오숙희(방송인)

3부

(마로니에 공원 11:30
~1:00)

수확공연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	이철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발표	정운광 (녹색교통운동 운영위원장)
참가시민 및 명사들의 제몹소감 발표 및 노래공연	
폐회	

□ 데 회 사

오늘 우리는 출발선에 함께 섰습니다



김관석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동의 연속성입니다. 이동이 어렵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이동의 자유, 즉 교통권을 제약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바로 4백만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교통권을 제약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장애인들은 집을 나서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조차 합니다.

87년 보도블럭의 턱을 없애달라고 자살한 김순석씨를 기억하십니까? 92년 휠체어를 타고 가다 난간에 부딪혀 즉사한 백원옥씨를 기억하십니까? 또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치여 즉사한 시각장애인의 참상을 기억하십니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지하철은 '금단의 땅'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곳이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없습니다. 표를 사는 일도 어렵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개찰구를 통과할 방법도 없습니다. 계단을 내려와도 지하철과 승강장의 사이가 넓어 승하차를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어야 합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울지로 역과 종합운동장역 고작 두 군데 뿐입니다. 장애인은 모두 울지로 역과 종합운동장역밖에 안다닌단 말입니까? 이렇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모두 막아 놓은 상태에서 역 구내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공중전화를 설치해 놓은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버스 역시 불편이 큼니다. 정차하는 위치가 일정치 않습니다. 정차시간도 짧습니다. 버스 계단이 높아 차를 타는 데 대단히 불편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내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또 승차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편견의 벽이 높아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휠체어를 타면 5센티미터의 턱도 못 넘는 장애인들에게 우리 나라의 도로는 험난한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가 안맞는 보도블럭, 턱없이 높게 돼 있는 횡단보도 턱, 곳곳에 설치돼 있는 지하도와 육교, 어디를 둘러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턱은 대개 10센티미터를 웃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20센티미터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길을 건너려면 고꾸라질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사회를 잇는 통로인 도로와 교통수단에서 장애인 편의는 이처럼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활 자체를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인으로 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동권의 보장일 것입니다. 장애인 역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삶의 질'을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역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교통권 확보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걸음은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이해, 특히 시민의 인식이 바뀌는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운동의 시발점에 섰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축 사

시민교통권의 변화 가져오는 첫걸음



정대철
(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창한 봄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이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각종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성황리에 펼쳐질 수 있게 된 것을 4백만 장애인과 더불어 축하하고자 합니다.

이올러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크셨을 '녹색교통운동'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행사는 교통에 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과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된 시민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행사는 이제 비록 그 첫발을 내딛는 데 불과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머지 않아 우리 사회의 범시민운동으로 확실히 정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취지대로 교통약자 및 장애인들의 이동권, 즉 시민교통권을 보는 사회 일반의 인식전환을 유도해낼 수 있는 '큰마당'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 및 장애인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탑골공원에서 대학로까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걸으면서 오늘 행사가 교통약자 및 장애인들께는 꿈과 희망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여러분들께는 교통약자 및 장애인들의 커다란 고통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이번 행사를 맞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4백만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한 것 같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에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녹색교통운동'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각종 사회 학생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은 이미 교통부에서 시민운동을 모범적으로 적극 펼쳐온 단체이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정책개발 활동을 꾸준히 벌여온 단체입니다.

다만 기존의 유사한 행사들이 대체로 이들 교통약자 및 장애인을 향한 '온정베풀기' 식으로 개최되거나 단순히 대외선전용에 그치고 말았던 전례를 거울삼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 일반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방치되어 온 장애우들의 교통권 문제에 따른 사회 일반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제도의 개선 등을 모색하려면 이와같은 행사가 대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더욱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아래 꾸준히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가일층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개최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교통권의 확보는 온 국민의 관심사



서경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적어도 한 측면에 관한 한 일본 국민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일본 사회의 엄청난 경제발전 때문도 아니고 도시의 깨끗한 환경 때문도 아니다. 일본 도시 어디를 가도 발견할 수 있는 맹인용 요철블럭 때문이다. 그 요철블럭은 맹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밟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그 블럭을 따라가고 있는 맹인과 부딪친 적은 없다. 전체 국민에 비해 얼마되지 않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의 교통권을 확보해준 일본 국민의 정성이 크게 존경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일본을 경제동물이라고 종종 비하하지만 오늘의 일본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본 국민이 선진국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믿는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 쉽게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교통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징검다리이다. 장애인 교통권의 문제는 단지 왜 소수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가 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가치관 문제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성숙해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온 국민이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교통권의 문제는 단지 장애인을 돕자는 운동이 아니다. 이 문제는 사지가 성하고 눈과 귀가 성한 사람들이 그동안 교통수단들을 독점해온 것에 대한 '반성운동'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 운동을 장애인들의 권리쟁취 운동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반성운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교통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나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머지 않아 반드시 장애인 교통권 확보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나는 우리 국민이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원한다는 점을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반성운동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한다.

인간중심의 교통구조를 위하여

-지하철·전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분석-

한 사람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적인 권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400만명이 넘는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에게는 여전히 '금단의 땅'이다. 지하철의 경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곳이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없으며 개찰구를 통과할 방법도 별로 없다. 계단을 내려와도, 지하철과 승강장의 틈새가 넓거나 높낮이가 달라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가 어렵다.

버스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차하는 위치가 일정치 않고 정차시간도 짧을 뿐 아니라 버스 계단이 높아 차를 타는데 대단히 불편하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내방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게 되어 있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도로 역시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이가 안맞는 보도블럭, 너무 높게 돼 있는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의 턱, 곳곳에 설치돼 있는 지하도와 육교, 어디를 둘러봐도 장애인이나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도로와 대중교통수단이 이처럼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무시하는 현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차별'인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 등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마다 교통사고로 5만명, 산업재해로 3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현실은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장애인 문제의 사회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는 단지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교통구조를 '인간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 조사결과 분석 ●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이번 조사는 녹색교통운동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400여명이 투입돼 지하철 1기 183개 역중 95개(서울지하철 공사 소속 72개역, 철도청 소속 18개 역)역사에 걸쳐 실시됐다.

<표1> 호선별 조사대상 역수

호선	전체역수	조사역수
1호선	9	9
2호선	47	34
3호선	31	10
4호선	26	19
철도청	71	18

1. 계단

계단은 장애인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 할 최초의 관문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교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계단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대부분이다.

계단은 폭이 너무 좁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 이용에 불편이 많으며 시각 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자들에게 꼭 필요한 중앙 손잡이가 없는 곳도 있다. 특히 시각장애 인들을 위한 점자안내도가 있는 곳은 단 한곳 밖에 없으며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세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2> 계단과 관련한 장애인 편의시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1994.4.15 현재)

종류	역수	수량	해당역	비고
엘리베이터	1	1	학여울	출입구-지하4층
에스컬레이터	24	141	역삼, 사당, 신도림, 이대, 충정로, 시청, 독립문, 경복궁, 안국, 종로3가, 을지로3가, 고속터미널, 교대, 도곡, 학여울, 대치, 동대문, 동대문운동장, 충무로, 명동, 회현, 서울역, 사당, 남태령	
휠체어 리프트	3	10	을지로입구, 종합운동장, 학여울	
경사로	1	1	학여울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	17	20	서울, 시청, 동대문, 잠실, 신도림, 교대, 사당, 충무로, 고속터미널, 동대문운동장
	인터폰	17	77	이동형휠체어리프트 비치 출입구, 승강장, 역무실 연결
	안내판	17	77	인터폰 주변에 부착

2. 대합실

대합실의 경우 매표소의 위치가 일정치 않아 시각장애인이 찾기 어려울뿐 아니라 출입구에서 매표소까지 거리가 최소 5미터에서 90미터가 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표소,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개찰구, 화장실 등을 알려주는 점자 안내도나 유도블럭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발매기는 자주 고장이 날뿐 아니라 위치가 높아 휠체어 장애우나 어린이 등이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자동개찰구가 없으며 비상개찰구가 있는 역이 있으나 자동개폐되지 않는다.

3. 화장실

1994년 4월 15일 현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소속 113개 역 가운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19곳 (17%), 세면기가 설치된 곳은 6곳(5%)에 불과했고, 그나마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곳도 대부분 외곽지역 이나 개찰구 안으로 이용이 불편하며 화장실은 계단이나 턱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표3> 화장실 계단, 턱

계단, 턱 유무		빈도(개)	비율(%)
계단만 있는 곳	계단 손잡이 있는 곳	1	1.1
	계단 손잡이 없는 곳	43	48.3
턱만 있는 곳		9	10.1
계단과 턱이 없는 곳		35	39.3
		88	98.8

4. 승강장

대부분의 승강장은 어두울 뿐 아니라 바닥이 미끄럽고 평탄하지 않으며 승강장에 추락방지용 난간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접근금지 표지와 안내 요원이 없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시 추락사고 등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표4> 승강장 장애인 안전 시설(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1994.4.15 현재)

종류	역수	수량	해당역	비고
승강장안전선	113			전 승강장(블록타일 노란선)
방송시설	113			역무실 및 방송시설 완비
유도블럭	1		합정역	출입구->승강장

5. 환승로 주변

승객의 이동이 많은 환승로는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멀뿐 아니라 대부분 계단으로만 이뤄져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리프트 등 이동보조 수단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6> 이동형 리프트 설치

분류	빈도(개)	비율(%)
있다	20	83.3
없다	4	16.7
계	24	100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장애인단체> 부름의전화, 삼육재활센터, 서울정신지체인복지관, 연화복지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학부모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세차협회, 한국약사협회,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 한국재활재단, 한국정신자제장애인애호협회,
 <사회단체> 겨레사랑운동시민연합회, 경제비전국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복지개발국민운동연합회, 국제시민봉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교통운동, 서울자동차정비사업조합, 어린이교통안전협회, 여성민우회,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단체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사단
 <종교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도교동학민족통일회, 조계종정찰 조계사 청년회
 <학년도체> 수화동아리연합회(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수화동아리, 서강대학교수화동아리, 중앙대학교수화동아리, 연세대학교재활과, 연세대학교적십자회, 자원활동자연맹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중앙대학교수화동아리, 한신대학교재활과학생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강남대학교특수교육과, 공주대학교특수교육과, 단국대학교특수교육과, 대구대학교특수교육과, 대구대학교재활대학, 대구대학교직업재활과, 이화여자대학교특수교육과, 전주우석대학교특수교육과) 키비터대학생연합회(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가톨릭의대, 영지대학교)
 -가나다 순-

함·께·걸·음·시·민·대·행·진·축·아·광·교

서울자동차정비사업조합 부이사장 김병희
오신산업 (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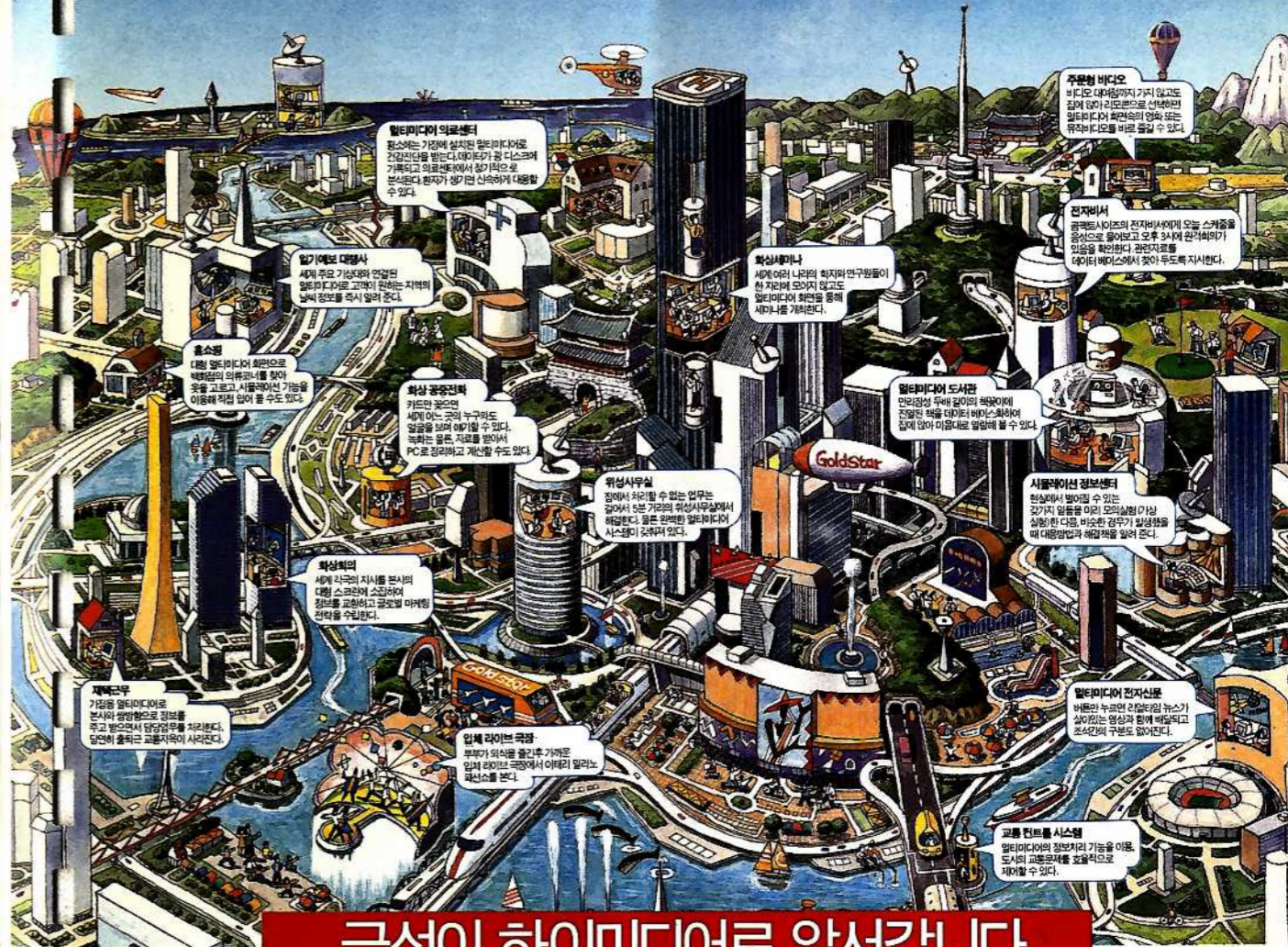
녹색교통운동 교통사고 가정 어린이돕기 본부장 신신약국 대표 박정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영락교회

주최 :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
 주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521-5364, 874-4009)

마침내 멀티미디어 시대!

금성은, 멀티미디어 시대를 미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금성이 하이미디어로 앞서갑니다

TV, 컴퓨터, 팩시밀리, 전화, AV 등을 따로따로 쓰지 않고도 멀티미디어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세상. 멀티미디어 화면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만나고 집에 앉아 회사일을 보고 영화와 연극을 감상하고 쇼핑을 즐기게 되는 세상.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꿈의 테크놀러지는 금성은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미디어"

하이미디어 기술이란?
금성의 독보적 기술영역인 하이미디어(HIMEDIA) 기술은 멀티미디어, 대화형미디어, 뉴미디어를 모두 일컫는 최첨단 미디어기술입니다. 하이미디어는 TV, 컴퓨터, 전화, AV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매체입니다. 하이미디어로 세계는 동시생활권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고도정보화사회가 완성됩니다.

GoldStar



금성 • 가전미디어 CU • 산전 CU • 정보통신 CU • 일렉트론 CU • 방산 CU • 전선 CU • 엘지미디어

선언문

인간존중과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교통문화를 위하여

가고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통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매일처럼 반복되는 주차난, 소통난은 물론 교통전쟁으로 한 해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강한 성인들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교통현실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에게는 이동의 자유마저 빼앗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나 지하철만 하더라도 장애인에게는 금단의 땅이나 마찬가지다. 역구내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만 계단 투성이의 지하도로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장애인이 과연 얼마나 있던 말인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처럼 자유롭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3미터 가기가 무섭게 앞을 가로막는 보도의 턱과 계단 그리고 정지신호도 무시한 채 달리는 자동차의 횡포 속에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또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90퍼센트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처럼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의 이동권을 위협하고 제한하는 비인간적인 교통구조는 해마다 5만여명의 새로운 교통장애인을 양산하는 '제도적 폭력'으로까지 자리나고 있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우선인 교통환경, 안전보다 소통이 우선인 교통정책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의 삶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삶까지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이들 교통 소외계층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는 길이다. 우리는 오늘, 교통에서의 평등과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과 함께 어깨걸고 힘찬 첫발을 내딛는다. 오늘, 장애인·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은 비인간적인 교통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우렁찬 울림으로 이땅에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오늘의 대회를 시작으로 인간존중과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박재찬 사건개요

1. 피해자 : 박재찬 20세 2급지체 근이양증 장애인
조부용 42세 박재찬의 어머니
2. 가해자 : 최상근 18세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폭력사건으로 형사재판에 게
류중임
3. 사건일 : 1999년 7월 8일 밤 10시 20분경
4. 사건내용

박재찬은 99년 7월 8일 밤 10시20분경 학교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어머니와 하교를 하는 중이었다. 그 날 학교는 인도가 공사중이어서 도로로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와 하교를 하였다. 학교 가로등은 모두 꺼져 있었는데 학교정문을 지나 체육관쪽으로 지날쯤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어머니는 휠체어를 피했지만 두모자는 뒤돌아볼 새도 없이 무참하게 봉변을 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무면허인 10대였다. 사고직전에 어머니는 "야이 새끼야 술 마셨으니까 천천히 가!"라고 들으셨다고 한다. 또한 사고 후 병원에 찾아온 가해자의 아버지가 "이틀간 슬럼프가 진동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이것이 빠져있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001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

병원에서 박재찬의 어머니는 10주, 박재찬은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박재찬의 어머니는 무릎인대가 거의 끊어져서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다. 박재찬의 어머니가 장애진단을 받는 것은 휠체어장애인인 박재찬에게 치명적인 것이다. 동하교를 시켜주시던 어머니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병원비는 지금까지 천만원이 넘는다.

가해자 아버지는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650만원의 공탁을 걸어놓았다. 모친 조부용 10주 500만원, 본인 박재찬 3주 150만원으로써 1000만원이 넘어가는 병원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현재 상황 (9월3일)

현재 가해자 측에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 상태이고 가해

자 아버지의 원금도 확인되지 않아서 압류가 되지 않아 민사사건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형사고발 역시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현재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최상군은 폭력사건으로 형사재판에 계류중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겨레 신문사의 기자와 연결하여 9월3일자로 사건기사가 나왔으며 청와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박재찬의 과 학생회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진정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재찬은 3주진단을 받고 퇴원을 하려하나 마땅히 그를 보호해줄 도우미가 없어서 어머니와 병원에 입원중이다.

활동 보고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소식을 접한 즉시 피해자와 연결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우리 연구소 전문 법률 상담가(변호사)와 직접 법률 상담을 의뢰했으며, 연구소의 이사인 이일영박사(의사, 아주대 재활의학과)의 도움으로 재찬이와 그 어머니의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검찰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할 수원지검에 제출했다.(99. 9. 15)

한편 검찰에게 재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해, 수원대 전산학과 학생회와 함께 우리 연구소는 서명운동을 벌치고 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발신 : 여준민간사

수신 : 유혜경 기자

진정서

- 피해자 1. 이름 : 박재찬
-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REDACTED]

- 피해자 2. 이름 : 조부용
-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 주소 : 상동

- 피해자 대리 진정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활용
(실무담당자 : 여준민간사)
-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02-521-5364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 가해자 이름 : 최상균(만 18세)

1.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87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장애인 문제의 본질이 '장애'라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 분위기를 일소,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 연구소는 지난 9월 초 연구소 인터넷을 통해 처음으로 피해자 박재찬군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어떤 분이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연구소에서는 그 즉시 피해자 박재찬군에게 연락을 취하고 공식 인권·법률

상담 건으로 취급하여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 이에 피해자 박재찬군의 진술과 사고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쪽을 무시하고 (어쩌면 피해자쪽에서는 가해자가 양심껏 사건을 책임질 것이라고 판단, 전적으로 모든 것을 가해자쪽에 맞긴 것임) 가해자 쪽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음매, 조작한 부분이 눈에 띄어, 검찰측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힘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이용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4. 왜냐하면, 분명히 정황상 가해자 최상근군은 사건 당시 부면하였습니다. 게다가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량이 거의 없는 것처럼(경찰조사 결과 0.001)조사되었고, 그로 인해 강력한 법적 책임망에서 벗어나 치료비도 안되는 금액으로 공탁을 걸어 피해자 박재찬군의 앞으로의 삶에 큰 절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5. 따라서 음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찾았던 아주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더라도 음주여부에 대한 파악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쪽의 혈액 채취 한 것에서 알콜농도를 재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더, 박재찬군의 어머니는 박재찬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마저 몸이 불편하게 되어 박재찬군은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어머님의 도움으로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박재찬군의 삶에 희망은 남겨져야 합니다.

7. 이 사건의 수사는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 확인 여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박재찬군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발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수신 : 박재찬군 문제에 관심있으신 모든 분들

박재찬군과의 만남 9.30(목) 오후 1시30

- 재찬이 문제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모두 오십시오!!! -

재찬이가 사고를 당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해자쪽은 공탁금 1천3백만원이외에 더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병원조차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벌써 1천만이 넘었고, 재찬이 어머니는 곧 2차 수술에 들어가지만 예전처럼 재찬이와 함께 다니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사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셔야 하고 형은 2개월동안 사건 때문에 뛰어다니다가 지쳐 의욕을 잃었고, 재찬이와 어머니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경찰수사가 끝나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원검찰청에 알아본 결과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월초쯤에 피해자인 재찬이와 어머니를 불러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 전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의 큰 호응으로 서명활동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명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모두들 알아서 서명을 하시고 다시 연구소로 팩스를 보내주시고, 서명용지를 새롭게 만들어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받아 재찬이와 어머니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재찬이 문제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청년연합회, 한겨레문화센터 생태학동우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 1시 30분 연구소 강당에서, 재찬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재찬이와 어머니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찬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재찬군」 사건 경과 일지

- 피해자 : 박재찬(20세) 수원대 전산학과 2년 재학중(현재 사고로 휴학) / 지체2급(근이양증)
조부용(42세) 박재찬군의 어머니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교색동 290-59호

연 락 처 : 016-291-9875 / 신병원 0331-294-7575

- 가해자 : 최상군(만18세 / 현재 대학생) 사고 나기 1달 전 폭행사건으로 현재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 있다. / 가해자 부모 최왕조(41세)

- 사건일 : 1999년 7월 8일 밤 10시 20분경

- 박재찬군은 근이양증(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병)을 갖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어머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그래서 박재찬군은 움직이는 것에 불편이 많아 수원대 가까이 방을 구하고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음
- 학교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항상 어머니가 박재찬군을 업고 강의실까지 함께 가는 등 어머니는 박재찬군의 몸의 일부분임
- 사고가 났던 7월 8일 당시에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교하던 길이었음
- 학교내에서는 인도를 공사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도로로 갈 수밖에 없었고 가로등도 꺼져 있어 어두운 상황이었음
- 학교 정문을 지나 체육관쪽으로 지날 쯤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어머니는 휠체어를 끌고 피했지만 두 모자는 뒤돌아볼 새도 없이 무참하게 봉변을 당함
- 박재찬군은 휠체어에서 쓰러져 버리질 다쳤고, 어머니는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증상을 입게 됨
- 사고직전 어머니는 “야! 이 OO야 슬마셨으니까 천천히 가!”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함

- 또한 처음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가해자 아버지가 "이틀동안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콜농도가 0.001(0.05가 구속여부의 기준치)이 나왔고
- 처음 간 병원에서 가해자가 박재찬군의 의료보험카드를 쓰라고 하면서 뺏치려는 자신이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의 마음을 안심시켜 놓고 무책임하게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임
- 처음 병원에서 박재찬군의 의료보험카드를 만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긴
- 어머니는 10주, 박재찬군은 4주의 진단을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어머니가 장애인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현재 장애인단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임)
- 병원비는 벌써 1천만이 넘었고 어머니가 재수술을 받으시면 병원비는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박재찬군은 사고로 휴학하였고, 형은 사고가 나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이제는 지쳐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있음(현재 수원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수사 촉구 서명이 2,000명을 넘어서고 있음)
- 박재찬군의 가족은 아주 병법하고 조용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처음 가해자가 하는 말을 모두 믿고 잘 해결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함
- 그러나 가해자측은 안심을 시켜놓고 모든 사건 처리를 가해자가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음
- 술 냄새가 나고 표면적으로도 술을 마셨다는 표시가 없을 정도면 음주측정 결과 0.001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경찰이 사고가 난 지 4시간만에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함
- 사건이 발생한 후 2개월정도가 지나 경찰에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겼으며, 현재는 수원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음.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고 10월초에 피해자쪽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 예정이라고 함
- 9월 15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수원검찰청에 제출
- 9월 15일 처음 공탁금 650만원에 이어 65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1천 3백만원의 공탁금 걸어들
- 한국청년연합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 함께 풀러가기로 함
- 현재 한겨레문화센터 생태학 동우회에서도 관심을 표명해 힘을 모으기로 함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회원들과 장애인단체, 복지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내용을 알리고 현재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음.
- 현재 서명은 연구소 홈페이지와 팩스를 이용해 취합하고 있음. 약 300여명이 서명에 참여
- 9월 30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연구소 강당에서 박재찬군 만남의 시간 갖기로 함